



호주 기업보험 현황과 기업휴지담보 상품 필요성

이규성 연구원

2018년 호주의 기업보험 성장률은 명목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가입금액과 실제 필요한 금액 간의 차이가 크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중단위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기업보험은 제조업의 제반시설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에 필요한 영업중단손실 대응은 미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외부의 우발적 사고위험으로부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의 영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휴지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의 공급이 필요함

■ Swiss Re 보고서¹⁾에 따르면 2018년 호주의 기업보험 성장률은 7.4%로 명목GDP 성장률(5.0%)을 3년 연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률이 낮은 해운보험(0%)을 제외한 운송, 배상책임, 재물 보험은 각각 10.3%, 6.6%, 4.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8년 상반기 기업보험의 합산비율은 95.1%로 손해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가입금액과 실제 필요한 금액 간의 차이가 크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중단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3월에 호주를 강타한 태풍 데비(Debbie)는 3.3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지만, 그 중 보험가입액은 2.1조 원으로 피해금액의 63.6%에 불과함
 - 호주의 기업보험 침투율²⁾은 0.8%로 세계평균 0.9%와 비교해 볼 때, 기업보험 침투율이 낮다고 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이 호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88%는 기업휴지(Business

1) Swiss Re(2018), Expertise publication the Australian commercial insurance market

2) 보험침투율=보험료/GDP

Interruption)³⁾위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

- 호주의 중소기업은 호주경제의 경제적 부가가치 56.7%, 고용의 67.9%를 차지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4%는 우발적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응방안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79%는 기업휴지담보가 설정되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함

■ 현재 호주의 기업보험은 제조업의 제반시설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 필요한 영업 중단손실 보장에 대한 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구성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서비스업에 비중이 큰 특징이 있음
 - 호주의 대기업의 주요업종은 광산, 제조업, 운송 등이며, 중소기업의 주요업종은 건축, 전문기술 서비스업, 렌트 및 부동산업, 헬스케어서비스 등임
- 서비스업의 경우 자연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업을 중단된다면 기대한 만큼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본이 부족한 영세업자는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손상된 보유재산을 보상받는 개념보다는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평균 영업현금흐름만큼을 보상해주는 상품이 적절해 보임
 - 서비스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은 고정자산보다 영업권 혹은 브랜드가치 등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재물보험 평가방식으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손상된 영업권 혹은 브랜드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려움

■ 외부의 우발적 사고위험으로부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의 영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 휴지위험을 담보해주는 상품의 공급이 필요함 **kiri**

3) 불의의 사고로 인해 기업 생산 혹은 판매활동이 중단됨